

尹·李 압승...차기 총선 순풍불까 역풍불까

■ 전·현직 지역 국회의원들 '손익계산' 분주 광주지역 5명 일단 양호한 성적표 전남 5명은 영향력 다소 약해질 듯

6·4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들의 차기 총선 고지에도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일단 광주 국회의원들은 비교적 양호한 성적표를 받았다. 일찌감치 지지를 표명한 윤장현 후보가 전략공천의 후폭풍 속에서도 광주시장에 당선되면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선거 막판 박주선 의원이 절박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윤장현 후보 지지 대열에 합류해 제면지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광주지역 5명의 국회의원(강기정, 김동철, 장병완, 임내현, 박해자)들은

당의 공천 결정에 앞서 윤장현 후보를 지지, 논란과 반발을 빚었다는 점에서 차기 총선에서 지지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중 박해자 의원(서구 갑)은 광주 국회의원들 중 가장 저조한 성적표를 받기도 했다. 광주시의원 당선자들과 일부 구의원 당선자들이 19대 총선 당시 경쟁자였던 조영택 전 의원측 인사들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특히 조영택 전 의원은 윤장현 광주시장 당선자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맹활약을 하면서 차기 총선에서 설욕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까지 오른 상황이다. 장병완 의원도 광주시장 선거 과정에서 강운태 무소속 후보와 깊은 정치적 인연이 있는 최영

호 남구청장 당선자와 미묘한 갈등이 있었다는 후문이다.

전남지역 국회의원 중에서는 박지원(목포), 우윤근(광양·구례), 김승남(고흥·보성), 황주홍(강진·장흥·영암), 이윤석(무안·신안) 의원 등이 유쾌하지 못한 결과를 얻었다. 지역구 기초단체장 후보들이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을 받고도 낙선하면서 지역 민심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력에 의문을 품는 시선마저 받게 됐다.

목포시장 선거에서는 박지원 의원의 적극적 지원에도 새정치연합 이상열 후보가 패배하는 이변이 펼쳐졌다. 광양시장 선거에서는 4차례의 연속 무소속 후보가 승리하는 진기록이 세워지면서 우윤근 의원(3선)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 보성군수 선거에서 새정치연합 정중해 후보가 패배한 데 이어 고흥군수 선거에서도 무소속 송귀근 후보가 선전하면서 재선이 걱정된다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황주홍 의원은 장흥군수 선

거에서 무소속 김성 후보가 승리한데다 영암군수 선거에서도 김일태 무소속 후보가 접전을 벌여 스타일을 구겼다. 이윤석 의원은 신안군수 선거에서 공천을 받은 박우량 군수가 일신상의 이유로 후보를 사퇴하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지는데다 공천을 둘러싸고 당 지도부와 갈등 끝에 대변인직을 사퇴하는 등 잃는 것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호남의 정치적 특성상, 대부분의 무소속 기초단체장 당선자들이 새정치연합에 복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관계 복원도 시간 문제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 정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무소속 당선자들이 새정치연합 출신인데다 다음 선거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복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여기에 현안 사업을 위한 국고 예산 확보 등에서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득표를 따라 희비 갈리는 후보들의 선거비용 보전

이성수, 절반 보전...이중효, 0.45%P 차로 한푼도 못받아

6·4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득표율 1% 때문에 선거비용 보전의 희비가 엇갈린 사례가 화제가 되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는 공식선거운동 기간 사용한 선거비용 전부를, 10~15%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는 절반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광주시장과 광주시교육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6억9300만원, 기초단체장의 경우 1억3400만~2억2400만원, 기초의원은 4200만~5100만원으로 득표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전액도 상당하다.

전남지사과 전남도교육감은 제한액이 13억7900만원이며 기초단체장은 1억2200만~1억9000만원, 도의원과 군의원은 4500만~5000만원에 이른다.

광주시장 선거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윤장현, 무소속 강운태 후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10% 벽을 넘지 못해 선거비용을 전혀 보전받지 못하게 됐다.

전남지사의 경우 통합진보당 이성수 후보가 12.47%를 얻어 선거비용 절반을 보전받을 수 있지만, 새누리당 이중효

후보는 9.55%를 얻어 0.45%포인트 차로 아깝게 10%의 벽을 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1~2%포인트 때문에 희비가 엇갈린 경우는 많았다.

광주 남구청장에 출마한 무소속 강도석 후보는 15.84%, 광산구청장에 출마한 통합진보당 박오열 후보도 16.63%를 각각 득표해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

동구청장에 출마한 통합진보당 김미화 후보는 11.73%를, 남구청장에 출마한 무소속 김대현 후보는 11.19%, 북구청장에 출마한 통합진보당 정형태 후보는 10.15%를 얻어 아쉽지만 선거비용 절반을 보전받게 됐다.

또 순천시청에 출마한 통합진보당 이수근 후보(10.94%), 구례군수에 출마한 무소속 김종영 후보(10.74%), 무안군수에 출마한 새누리당 오원욱 후보(10.04%)도 가슴을 쓸어내렸다.

반면 나주시청에 출마한 무소속 나창주 후보는 9.91%를 얻어 0.09% 차이로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없게 됐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이 당선자, 실·국장 도정보고 받아 이낙연 전남도지사 당선자가 5일 전남발전연구원 회의실에서 전남도청 실·국장들로부터 첫 도정보고를 받고있다. <당선자측 제공>

이낙연 전남도지사 77.96% 광역 최고 득표 민형배 광산구청장 83.36% 전국 최고 득표

6·4 지방선거에서 민형배(사진) 광주 광산구청장 당선인이 83.36% 득표율로 전국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당선인 중 최고 득표율(무투표 당선 제외)을 기록했다.

민 당선인은 광산구청장 선거에서 12만 7437표를 얻어 83.36%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16.63%를 득표한 통합진보당 박오열 후보를 누르고 압승했다.

또 이낙연 전남도지사 당선인은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중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 후보는 5일 개표 마감 결과, 77.96%(75만5036표)를 얻어 통합진보당 이성수 후보(12.5%), 새누리당 이중효 후보(9.6%)를 제쳤다. 이는 광역단체장 최고 득표율로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77.73%를 기록했다.

이 당선인은 5일 새벽 1시까지만 77.5% 득표율로 김관용 경북도지사의 득

표율 79.5%에 밀려 2위를 기록했으나 이후 서서히 이 당선인의 득표율은 올라가고 김지사의 득표율은 떨어지면서 최종 1위로 올라섰다.

이 당선인의 득표율은 지금까지 6차례 치러진 전국 동시 지방선거 가운데 역대 전남지사 최고 득표율이기도 하다.

지금까지는 1995년 제1회 선거 때 당시 민주당 허정만 후보가 얻었던 73.50%가 최고치였다.

광주시장 선거에서는 1회 때 민주당 후보로 나온 송연중 후보의 득표율 89.71%가 역대 최고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벌써 7·30 재보선 열기

배기운·김선동 12일 대법 선고

7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광주 광산 을과 영광·장성·함평·담양 지역구를 놓고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나주·화순) 의원과 통합진보당 김선동(순천·곡성)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오는 12일로 예정돼,

광주 광산 을, 담양·함평·장성·영광 2곳 김효석·천정배·조영택·이개호 등 거론

선거 결과에 따라 재·보선 지역구가 4곳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커졌다.

두 의원은 12일 선고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지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광주·전남지역 재·보선 지역구가 4곳으로 늘어 '미니 총선'을 노린 국회의원 지방생들의 치열한 각축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광주 광산을은 새정치민주연합 이용섭

이낙연 전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공식이 됐으며 담양·함평·장성·영광은 이낙연 전남도지사 당선자의 지역구다. 우선, 광주 광산 을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효석 전 의원,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 조영택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담양·함평·장성·영광은 이개호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지사 선거전에

나섰던 이석형 전 함평군수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핵심은 전략공천 여부다. 일단 정계에서는 전략공천 가능성을 높다는 관측이다.

그동안 대부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경선보다는 전략공천으로 이뤄지는데다 경선을 치를 만한 시간도 넉넉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광주시장 후보 전략공천의 후폭풍으로 곤욕을 치르는데다 전략공천 과정에서 계파 간의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도부가 경선을 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NAVER **단비플라워** 등 최선으로

단비플라워

죽아화완3단 근조화완3단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외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부실채권(미회수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개인차용금·공증·판결문 각종 미회수대금

- 수수료(회수금액의 30%이내)
-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국가공인 자격증 소지자 직접 추심

- ◎ 텔레마케터 수시모집
- ◎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

세일신용정보(주)
062)385-0006, 010-4608-6061 (담당:김정수)

두암신협 특판

50억 한시

정기예탁금 1년 **3.1%**

알찬예탁금 최고 **2.9%**

수시입출금통장

더 높은 이율과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1인당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두 암 신 협

본 점: 263-0136 (말바우 사거리)
울곡지점: 264-1232 (두암중학교 인근)
첨단지점: 572-9511 (송마아트점 맞은편)